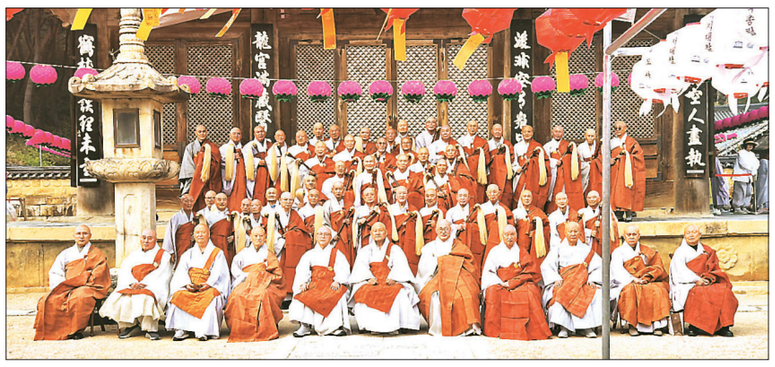
대종사·명사 품서식…“승가의 사표 탄생”

4월 10일, 통도사 설법전서 봉행
대종사 48 · 명사 16 총 64명 품수
성파 대종사 “교화 덕행 결정체”
진우 스님 “정법 당간지주” 당부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4월 10일 통도사 설법전서 봉행된 대종사 · 명사 법계 품서식에서 대종사 48명, 명사 16명이 품수받았다. 대종사 법계를 품수한 스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계종이 불기2569(2025)년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을 4월 10일 영축총림 통도사 설법전에서 봉행했다.

대종사·명사 법계 품서식은 조계종 최고 법계인 ‘대종사’와 비구니 최고 법계인 ‘명사’에 오른 수행자들의 가르침과 삶을 기리며, 그 정신을 승가와 불자들이 함께 되새기는 자리이다.

이번 품서식에서는 총 64명의 스님들이 법계를 품수했다. 대종사 48명, 명사 16명이며, 스님들은 수십 년간 수행과 교화를 통해 쌓아온 공덕과 지도를 인정받아 종단으로부터 법계증과 25조 대가사를 수여받았다.

이날 법석을 증명한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법어에서 “대종사와 명사의 법계는 오랜 세월 동안 정진과 수행, 설법, 교화의 공덕이 축적된 결과”라며 “이름 뒤에 숨겨진 그간의 노고와 열정을 깊이 새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오늘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경과 수행을 견디며 정법을 전해 온 그 길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인가를 모두가 헤아려야 한다”며 “종단과 사부대중은 대종사와 명사 스님들의 공덕을 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승은 100년의 세월 동안 비바람을 견디며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과 같다”며 “이처럼 오늘 품서 받는 스님들도 불법을 지키고 교단을 바로 세우는 수호자의 삶을 걸어오셨다”고 찬탄했다. 스님은 “법계는 출가 수행자의 수행력과 권위의 상징이며, 대종사와 명사 법계는 일평생 수행정진과 교화덕행의 결정체”라고 설했다.

법계 수여에서 성파 대종사는 법계증을 대종사 대표 보각 스님에게, 대가사를 지현 스님에게 수여했으며, 명사 대표 상덕 스님에게는 법계증을, 정엽 스님에게 대가사를 수여했다. 이어 모든 품수자들은 가사 정대를 마치고 삼배를 올렸으며, 정대게송을 합송하며 서원을 다졌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대종사와 명사 스님들께서는 조계종의 기틀을 세우고, 수행의 길에서 한결같은 걸음을 걸어오신 사표”라며 “오늘 이 자리가 종단 구성원 모두가 정법을 새기고 화합을 이루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정법의 당간지주가 되어 불조의 혜명이 면면히 이어지도록 후학을 이끌어주시길 간절히 앙망한다”며 “종단 역시 신뢰받는 불교, 공심으로 함께하는 불교를 실현하기 위해 정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진우 스님은 이와 함께 대종사 대표 영담 스님에게 지도자의 상징인 불자(拂子)를, 명사 대표 상덕 스님에게는 자비의 상징인 여의(如意)를 각각 봉정했다.

이날 법계 품수자 가운데 종열·삼보·보각·영담·지현·원행·수불 대종사는 수행과 교화의 결실을 종단에 회향하고자 ‘승려복지 기금’을 총무원에 전달했다. 본각·상덕(직지사)·상덕(직할교구)·정엽 명사도 동참했다. 이 기금은 승려전문 요양병원 운영과 종단 복지 기반 확대에 사용될 예정이다.

법계 품수자를 대표해 수불 대종사가 발원문을 낭독했다. 스님들은 “삼계의 대도사이신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법계에 두루 비치시어 모든 중생을 이익케 하시기를 바란다”며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 없이 용맹정진하겠다”고 서원했다. 이어 “이 인연 공덕으로 부처님 법이 세상을 덮고, 법의 수레바퀴가 쉼 없이 굴러 온 법계가 화장세계로 꾸며지길 바란다”고 발원했다.

불교 조롱 논란 ‘갈비집’ 간판…“상식 밖 상업주의” 비판

승복입은 소 캐릭터 ‘눈살’
논란 일자 “곧 교체 예정”

경북 경주 황리단길의 한 식당이 불교 수행자 복장의 캐릭터를 간판에 사용해 조롱 논란이 일었던 가운데, 업체 측이 해당 간판을 교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제가 된 간판은 ‘교리숯불갈비’라는 상호의 식당 안내 간판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간판 속 캐릭터는 승복을 입고 염주를 든 채 혀를 내민 소의 모습으로, 불교계와 시민들 사이에서는 “불교를 희화화한 상업주의의 전형”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특히, 불교 수행자의 복장이 ‘살생을 금지하는 불교 교리’와 정면으로 배치된 고기 요리점에 사용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커졌다.

불교계는 이 캐릭터가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불교 가르침을 왜곡하고 희화화한 것이라고 시정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일부 방문객들이 해당 캐릭터를 ‘소 스님’이라 부르며 장난스럽게 소비하고 있던 상황.

이에 대해 동국대 WISE캠퍼스 죽림회장 도연 스님은 “이런 캐릭터는 단순한 디자인을 넘어 불교 가르침을 우롱하는 행위”라며 “부처님 제자 복장을 한 캐릭터가 고기를 앞에 두고 웃고 있다는 건, 신앙을 가진 이들에게는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불교상담학회 총괄이사 현도 스님도 “불교의 상징을 이용해 갈비를 팔겠다는 발상 자체가 상식 밖”이라며 “관광객을 끌기 위한 마케팅이라 해도 최소한의 종교적 배려와 존중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가게 측은 간판 교체 방침을 밝혔다. 4월 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관계자는 “현재 간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교체 작업에 시간이 소요돼 다음 주 중으로 변경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역 불교계는 이번 논란을 단순한 마케팅 실수로 보지 않고, 종교 상징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할 시점이라고 입을 모았다.

정분남 부산여성불자회장은 즉시 경주시청에 문제 간판 관련 민원을 전달했다. 정 회장은 “불교의 상징이 상업적 도구로 전락하는 일에는 반드시 제동이 걸려야 한다”며 “공공장소에서 종교적 감수성을 지키는 일은 행정기관과 시민, 불자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죽림회장 도연 스님은 “발 빠른 대처로 간판이 곧 교체된다고 하니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번 일을 통해 신행의 품격을 지켜낸 불자들의 힘을 다시 한 번 느꼈고, 앞으로도 불교의 상징과 정신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상월결사,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 연다

5~6월 의정부, 대구 등 전국서
상월비보이 등 청년불자 참여

상월결사(이사장 호산 스님)는 4월 8일 서울 봉은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6월 6차례에 걸쳐 의정부·대구·구미·논산·부산에서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PAUSE)’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비보잉, 뮤지컬, 미디어 아트 등을 통해 불교의 가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연이다. 이경재 연출가가 연출을 맡은 이번 공연에는 최예림 국악 싱어송라이터, 길대호 보컬리스트를 비롯해 상월결사 비보이단 ‘EEIGHT’, 상월결사 합창단, 상월결사 JH콰이어 등이 참여한다. 출연진 모두 청년 불자들로, 이들이 기획하고 무대를 구성했다.

공연은 총 4장으로 이뤄졌다. 1장 논스톱(NONSTOP)은 순수한 놀이가 중독이 되는 과정을, 2장 스크림(SCREAM)은 중독으로 자신의 감정이 무너지는 과정을 비보잉과 뮤지컬 안무로 그려낸다. 3장 퍼즈(PAUSE)에서는 출연진과 모든 관객들이 명상을 하며 1분간의 절대적 침묵을 체험하고, 마지막 장인 4장 플레이(PLAY)는 멈춤 이후 더 자유로워진 자신을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통해 표현한다.

상월결사의 문화공연법회 ‘잠시멈춤’은 5월 10일 오후 2시·6시 의정부 예술의전당 공연을 시작으로 △대구 아양아트센터(5월 25일 오후 6시) △구미문화예술회관(6월 1일 오후 6시) △논산훈련소(6월 14일 오후 3시) △부산시민회관(6월 21일 오후 6시)에서 진행된다. 공연 일정 중에는 영남 산불 피해를 돕기 위한 모금운동도 이뤄질 예정이다.

호산 스님은 “‘잠시멈춤’은 일회성 공연이 아니라 청년불자들과 수정·보완하며 완성시켜 나가는 공연이 될 것”이라며 “종단과 불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중일 기자



세상을향기롭게 ·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에 자전거 선물

사단법인 세상을향기롭게(이사장 정여 스님)와 로터스월드(이사장 성관 스님)는 4월 5일 로터스월드 캄보디아아동센터에서 학생 300명에게 통학용 자전거를 전달하는 기증식을 진행했다. 세상을향기롭게 이사장 정여 스님은 “캄보디아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내영 기자

분실·파손 ‘조계종 신도증’ 무료 재발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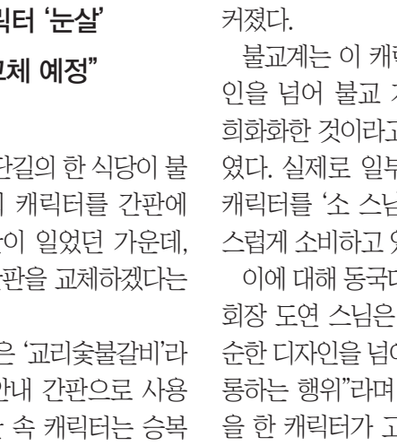
7월 31일까지 사찰 종무소 신청

조계종 총무원 포교부는 종단 조직개편에 따른 삼원통합을 기념해 7월 31일까지 ‘조계종 신도증 무료 재발급’ 이벤트를 운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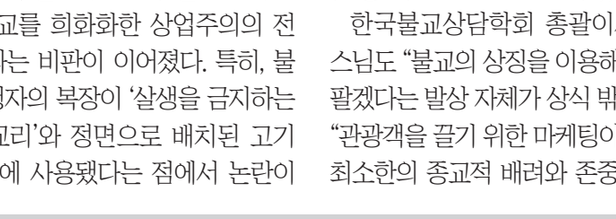
2025년도 교무금을 납부한 조계종 신도에 한해, 재적 사찰 종무소에서 신도증 무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하다. 조계종 신도로 등록하면 동국대의료원 및 경희의료원 진료비 할인, 불교전문서점 향전 도서 구입비 할인, 하동 케이블카 이용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조계종 신도증은 스마트폰에서 모바일로도 소지할 수 있다. 재적 사찰에서 신도 등록을 완료한 후, 안드로이드와 IOS에서 조계종 모바일 신도증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아 로그인 하면 된다.

김내영 기자

제5회 법계문학상 수상작



『구마라습』 혜원 지음
396쪽 | 142*205 | 값 18,000원



제1회 수상작 푼다리카 신이산 지음
제2회 수상작 꺼지기 쉬운 빛 이갑숙 지음
제3회 수상작 푸른별의 노래 이종숙 지음
제4회 수상작 블루마운틴 강영애 지음

제6회 2025 법계문학상 공모 안내

법계문학상은 <운문사>를 한국 최고의 비구니 교육기관으로 성장시키며 비구니 교육과 권익증진에 평생을 바친 법계 <명성 스님>의 서원에 의해 제정된 불교문학상입니다.

| 응모부문 장편소설 1편 (200자 원고지 1000매 이상)
| 응모주제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한 자유 소재
| 응모대상 대상 1명
| 응모기간 2025년 10월 1일 ~11월 5일
| 상 금 대상 2천만 원
| 응모자격 신인 또는 등단 7년 이내 작가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 표 2025년 12월 내 *법계문학상 홈페이지
| 시 상 2025년 12월 내 *추후 공지

| 접수 방법 1) 법계문학상 홈페이지에서 응모 신청서를 다운로드 후 이메일 접수
http://blog.naver.com/batistaff (우측 QR코드)
2) 응모 작품 우편 제출 *마감당일 소인 유효함

| 접 수 처 서울시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1. 1214호 법계문학상운영위원회

*자세한 공모 안내는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_ http://blog.naver.com/batistaff
이메일_ batistaff@naver.com
연락처_ 070.8880.8202 팩스_0505.361.9565